

# “이제 ‘축구’를 내려 놓으려 합니다”



지난 7월 18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의 경기 후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는 기영욱 단장. /광주FC 제공

## 기영욱 광주FC 단장 사의 표명

### 1부 승격, 전용구장·연습구장 건립 등 팀 발전 토대 마련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팀 떠나...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광주FC 1부리그 승격과 전용구장 건설이라는 숙원을 해결한 기영욱 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기영욱 단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년 전 팀이 1부리그에 승격하면 단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게 돼 다행”이라며 “1부 승격, 전용구장·연습구장 건립 등 목표했던 것을 다 이뤘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떠나게 해준 박진섭 감독과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기영욱 단장은 금호고, 광양제철고에서 수많은 선수들을 길러낸 지도자로, 광주시축구협회장이라는

행정가로 광주 축구 발전에 남다른 헌신을 했다.

2010년 광주FC 팀 창단 작업부터 공을 들인 기영욱 단장은 2015년 ‘광주 축구’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무보수 상근직 단장을 맡아 팀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해 왔다.

기영욱 단장 취임 이후 광주FC는 2015년 팀 창단 최다승(10승)을 거두며 K리그 클래식 승격팀 최초 잔류에 성공했고, 2016년 팀 창단 최다승 신기록(11승)을 거두며 역대 최고 순위인 정규리그 8위에 올랐다.

하지만 2017년 K리그 클래식 정규리그 12위로 강등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기영욱 단장의 진두지휘로 외국인 선수 영입과 트레이드로 팀을 재정비한 광주FC는 지난해 K리그2 정규리그 5위에 오르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기영욱 단장은 인프라 구축에도 열정을 바쳤다.

축구인들의 숙원 사업인 광주축구센터(연습구장)·축구전용구장 건립이라는 목은 과제를 해결하며 선수단 사기를 진작시켰다.

그 결과 광주FC는 올해 구단 첫 6연승·K리그2 최다무패 신기록(19경기)·구단 최다 승 및 최다 승점(21승·73점)·구단 통산 100승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당당히 K리그1 무대에 입성했다.

기영욱 단장은 “올해 K리그2 우승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면서 “광주FC가 새로운 단장과 함께 내년 1부 리그에서 계속 잔류해 챔피언스 리그에도 나갈 수 있는 강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영욱 단장은 “광주FC 승격의 원동력은 시민들의 관심과 뜨거운 응원도 한몫했다”며 “선수들에게 희망을 선사해준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기성용(뉴캐슬)의 아버지’로도 유명한 기영욱 단장은 “26살 때부터 지도자를 해왔다. 지금까지 너무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쉼 쉬고 싶다”며 “성용이한테 가고 싶고, 손녀도 보고 싶고, 지금까지 못했던 여행도 다니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스스로 단장직에서 물러나는 기영욱 단장은 마지막까지 “선수들 연봉 협상을 잘해야 한다. 감독도 우승시킨 감독인 만큼 예우를 해줘야 한다”면서 “광주가 만약 다시 2부로 내려간다면 다시 1부로 올라오기 쉽지 않다. 이제 2부 리그에 기업구단 팀들이 많이 내려와 경쟁이 쉽지 않다. 내년엔 잘 해야 한다”는 진심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박희중기자

## LPGA ‘최근 10년간 최고 선수’ 팬 투표



박인비 박성현

## 박인비 vs 박성현 ‘8강 격돌’

‘골프 여제’ 박인비(31)와 ‘남달라’ 박성현(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근 10년간 최고 선수 팬 투표 2회전에서 맞대결한다.

박인비와 박성현은 4일 발표된 LPGA 투어 10년간 최고 선수 팬 투표 1회전을 나란히 통과했다.

전체 톱 시드를 받은 박인비는 교포 선수 미셸 위(미국)와 벌인 1회전에서 팬 투표의 85%를 획득, 15%에 머문 미셸 위를 따돌리고 8강에 안착했다.

8번 시드의 박성현은 9번 시드 유소연(29)을 상대로 57%-43%로 승리를 따내 2회전에 진출했다.

LPGA 투어는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 16명을 추려 팬 투표 형식으로 최고 선수를 가리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16명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팬 투표 맞대결을 벌여 더 많은 표를 얻은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우승 횟수와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신인상 등 개인 성적, 솔하임컵이나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등 단체인 출전 경력 등을 기준으로 후보 16명을 추렸다.

후보 16명 중 최근 10년간 객관적 지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인정받은 박인비가 1번 시드를 받았고 2번 시드는 쟁야니(대만)가 들어갔다. /연합뉴스

## 이해인, 주니어 그랑프리파이널 출전

### 내일 쇼트프로그램...김연아 이후 14년 만에 메달 도전

올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깜짝 연속 우승을 차지한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미래’ 이해인(14·한강중)이 ‘왕중왕전’인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실력을 겨룬다.

이해인은 6일 새벽(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2019-202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한다.

이해인은 올 시즌 한국 피겨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는 지난 9월 주니어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197.63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뒤 같은 달 열린 6차 대회에서 203.40점으로 우승하며 주니어그랑프리 파이널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국 여자 선수가 주니어 그랑프리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건 2005년 김연아(은퇴) 이후 14년 만이었다.

이해인은 이제 김연아 이후 여자선수로 처음으로 주니어그랑프리 파이널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이해인은 쿼드러플 점프, 트리플 악셀 등 고난도 기술을 장착하지 않았지만, 기복이 적고 연기력의 완성도가 뛰어나다.

큰 대회에서도 크게 떨지 않는 강심장을 가진 터라 주니어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자기 연기만 펼치면 포퓰러 충분히 오히려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

## ‘바둑여제’ 최정, 오청원배 우승

### 세계 여자대회 2관왕 등극

‘바둑 여제’ 최정 9단이 올해 마지막 세계 여자대회인 오청원배 정상에 올라 세계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최정은 지난 3일 중국 푸저우 오청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바둑대회 결승 3번기 2국에서 중국랭킹 1위 왕칭싱 5단에게 149수 만에 흑 불계승했다.

이로써 종합전적 2-0을 기록한 최정은 오청원배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최정은 지난달 공룡산병성배에서 3연패를 달성한 데 이어 세계대회 2관왕

에도 올랐다.

통산 세계대회 우승은 다섯 번째다.

이날 승리로 최정은 왕칭싱을 상대로 최근 7연승을 거두는 등 통산 전적에서 8승 1패로 압도적으로 앞섰다.

최정은 대국 후 “응원해주신 팬분들과 동료들 덕분에 우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청원배는 현대바둑의 창시자로 불리는 오청원 9단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중국이 창설한 국제 여자대회다.

오청원배 우승 상금은 50만위안(약 8천500만원), 준우승 상금은 20만위안(약 3천400만원)이다. /연합뉴스



## 장슬기, 스페인 무대 뒀다

### 마드리드 CF 페메니노 입단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의 수비수 장슬기(25)가 스페인 무대에 진출한다.

4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WK리그 인턴 현대제철에서 뛰던 장슬기는 스페인 여자축구 1부리그인 프리메라 디비시온의 마드리드 CF 페메니노 입단을 확정했다.

장슬기는 연령별 대표팀부터 한국 여자 축구의 주축으로 활약해 온 선수다.

2010년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에서 결승전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나서 한국의 우승을 결정지었고, 2012·2014년 U-20 여자 월드컵 등에 출전했다.

성인 대표로는 프랑스 여자 월드컵을 포함해 60경기에 나서 11골을 기록했다.

2015년 일본 고베 아이낙에 입단한 그는 이듬해부터 현대제철에서 뛰며 팀의 WK리그 연속 우승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엔 대한축구협회 선정 ‘올해의 여자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대표팀에서는 수비수로 활약했지만, 소속팀에서는 공격수로 뛰었을 정도로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갖췄다.

장슬기의 스페인 진출로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은 잉글랜드에서 뛰는 지소연(첼시), 조소현(웨스트햄), 이금민(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또 한 명의 ‘유리과’를 보유하게 됐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열린 제24회 세계선수권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슛을 던지는 류은희. /국제핸드볼연맹인터넛 홈페이지 사진

## 女핸드볼, 독일 꺾고 조 1위 노린다

### 내일 독일전 ‘총력’... 조별리그 최종전 승리 시 조 1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초반 선전을 이어가는 한국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강재원 감독이 결선에 유리한 순위로 진출하기 위해 남은 독일과 조별리그 경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강재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린 제24회 세계선수권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브라질을 33-27로 꺾었다.

첫 경기에서 2017년 세계선수권 우승국 프랑스를 29-27로 물리친 우리나라는 1일 열린 2차전에서는 전통의 강호 덴마크와 26-26으로 비겼다.

우리나라는 6일 독일을 상대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나선다.

이번 대회는 각 조 3위까지 결선에 올라 조별리그 성적을 안고 다시 리그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 B조는 2013년 우승팀 브라질, 2017년 우승팀 프랑스에 1996년 애틀랜타부터 2004년 아테네올림픽까지 3연패를 달성한 덴마크, 최근 기량이 급상승한 독일까지 한 조에 묶여 ‘죽음의 조’로 불린다.

이번 대회 직전에 국내에서 ‘전초전’ 성격으로 치른 프리미어 4 국제 대회에서 러시아, 헝가리, 세르비아에 3전

패를 당한 우리나라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결선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뜻밖에 조 1위도 바라보게 됐다.

강재원 감독은 3일 브라질과 경기를 마친 뒤 “총력을 다해서 독일을 이기면 조 1위나 2위가 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강 감독은 “그렇게 되면 결선을 유리한 자리에서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결선 리그에서는 상위 2개국이 4강에 올라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조 1위로 올라가야 4강에 갈 기회도 그만큼 많아지는 셈이다. /연합뉴스